

성찬,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눅 22:19-20)

I. 믿음의 회복, 나니 두려워 말라 (이전 메시지)

- A.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등은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고, 그분이 이를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믿음의 세대”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이를 통해 상황이 어려운 때를 지나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이다. 이 믿음의 세대는 다음 믿음의 세대를 낳을 것이다.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 14:25-33)

II. 성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 A.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2가지 교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으며,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신 것이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눅 22:19-20)

- B. 성찬은 성만찬, 주님의 만찬, 유카리스트(Eucharist,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며, 성찬을 통해 우리는 ¹⁾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²⁾ 예수님과 실제적인 연합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과의 만찬), ³⁾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성찬은 그 횡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예배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중에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이 성찬이 제정된 원래 배경과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자 한다. 성찬은 원래 유월절 만찬(Sedar)의 순서의 일부였다.

17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 이르시되 ... 19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 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 26:17-26)

III. 성찬, 우리와 그리스도의 하나됨

- A.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구절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마 26:26-27; 막 14:22-24; 눅 22:19-20), 이는 둘에 새겨진 모세 율법에 근거한 언약이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십자가를 통해 새로 세워지는 새 언약의 성취를 선포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렘 31:31-32).

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6-28)

31 ...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31:31-33)

- B. 성찬 자체가 새 언약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을 이루신 그분과 연합하며 새롭게 되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됨을 말씀하셨다.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6:53-57)

- C. **떡을 떼어 나눔:** 유월절 만찬에서의 순서를 보면, 유월절 만찬의 초반에 인도자(가족의 대표, 보통 아버지가 무교병인 마짜(Matzah) 3개가 놓인 마짜 그릇에서 중간 것을 반으로 자른 후, 자른 것에서 작은 것은 다시 두 마짜 사이에 넣고, 남은 것은 아피코만(afikomen, 식사의 마지막)이 되는데, 냅킨 등으로 싸서 아이들이 유월절 만찬 마지막에 찾도록 집 안에 숨긴다 (아피코만: 미래에 있을 구속의 희망 / 만찬의 마지막에 먹기에, 구속의 완성을 의미 / 구속과 연관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함을 의미).

Web에서는 2페이지까지만 제공됩니다